

“지옥을 보여주마”



KIA 타이거즈가 오는 20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시 캔자스시티 스프링캠프장에서 2013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간다. 본진의 합류로 본격화되는 캠프는 오는 2월9일 일본 오키나와로 자리를 옮겨 3월6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은 지난해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서 훈련하고 있는 투수 김진우.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오키나와 스프링캠프 돌입

46일간 55명 참가

KIA 타이거즈가 20일 본격적인 스프링캠프 체제에 들어간다.

지난 9일 재활조의 출국으로 시작된 KIA의 스프링캠프가 20일 선동열 감독이 이끄는 본진의 합류와 함께 공식적으로 막이 오른다.

부상 탈출을 노리고 있는 이범호와 김상훈 등을 비롯한 재활조가 9일 가장 먼저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시 캔자스시티에 캠프를 차렸고, 지난 13일에는 박경태, 진해수 등 투수진과 FA대어 김주찬과 ‘꼬꼬마 키스톤’ 김선빈·안치홍 등 주축 야수진이 현지

에 집을 풀었다.

16일 서재응·윤석민·이용규 등 ‘WBC 3인방’에 이어 20일에는 선 감독과 함께 나지완·김주형·이준호 등 본진이 캠프지에 입성하면서 KIA의 스프링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오는 3월26일까지 46일간 계속되는 캠프에는 선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3명과 서재응 및 외국인투수 등 투수 20명, 김상훈 등 포수 4명, 이범호 등 내야수 10명, 김원섭 등 외야수 8명 등 총 55명이 참가한다.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훈련이 진행되며 선수들은 내달 9일 귀국해 바로 일본

오키나와로 캠프지를 옮긴다. 이어 3월 5일까지 훈련과 연습경기를 병행하며 실전감각 조율에 나선다.

2월14일 니혼햄을 시작으로 야쿠르트, 주니치, 라쿠텐, 한화·넥센·SK·LG·삼성의 연습경기가 14차례 예정되어 있다.

2013 루키 중에서는 투수 손동욱·이효상·고영창(이상 투수), 고영우(내야수)·서용주(외야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재활을 끝낸 투수 임준섭에게도 첫 스프링 캠프이며, 신고선수 투수 김승현·안우주에게도 도전 기회가 주어졌다. 넥센과 LG에서 방출된 포수 강귀태와 투수 이대환도 새 유니폼을 입고 재기를 꿈꾼다.

◇스프링캠프 선수단 명단

▲감독 : 선동열 ▲코치 : 이순철·김용달·김영호·박철우·정희열·조규제·신동수·김태룡·김종국·곽현희·홍우태·하나마스 ▲투수(20명) : 최항남·유동훈·서재응·김진우·양현종·박지훈·박경태·진해수·한승혁·윤석민·이대환·임준섭·손동욱·이효상·고영창·이정훈·안우주·김승현·앤서니·소사 ▲포수(4명) : 김상훈·차일목·이성우·강귀태 ▲내야수(10명) : 이범호·안치홍·김선빈·김주찬·이용규·이준호·신종길·서용주·나지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석민 야구장 찾아 3만리

인천공항→LA→애리조나

1만1000km 이동 캠프 합류

KIA 에이스 윤석민은 길고 긴 16일을 보냈다.

윤석민은 스프링캠프를 위해 16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오후 5시20분에 날개를 편 비행기는 10여시간을 날아 LA 공항에 도착했다.

여정은 계속됐다. 국내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5시간여를 공항에서 대기한 뒤 애리조나주 피닉스행 비행기를 탔다. 다시 2시간을 날아간 윤석민은 차로 1시간을 움직인 뒤에야 숙소로 짐을 풀 수 있었다. 19시간이 걸린 이동, 시차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16일이었다.

이동 거리만 해서 1만1000km가 넘는 하루가 꼬박 걸린 거리. 야구장을 찾아 ‘만리’를 달린 셈이다.

미국에 도착이 유쾌하면서 선수단은 독감주사까지 챙겨 맞고 먼길을 떠났다. 이런 수고스러움까지 마다하지 않고 애리조나로 떠나는 이유는 최고의 경기장 시설과 환상의 날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요 며칠 예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선수단에 ‘감기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따뜻한 날씨로 본토에서도 요양지로 유명하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하지만 낮기온은 20도 이상 오른다. 햇빛이 강하지만 습도가 낮아서 훈련하기에는 최적의 기후다. 또 1년에 비가 오는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날씨가 훈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메이저리그구단이 이용하는 최고의 시설이 발길을 잡는다.

‘스포츠 콤플렉스’는 8000석 규모의 스타디움과 12개 연습구장, 2개 내야 연습장 등을 갖추고 있다. 라켓, 체력단련



실, 실내연습장도 잘 갖춰져서 40명이 넘는 선수가 곳곳에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시설만큼이나 선수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천연잔디다. ‘밭기 조심스러운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잘 관리된 잔디에서 선수들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 따뜻한 곳에서 부상에 대한 걱정없이 훈련을 하면서 효과도 만점이다.

오키나와의 2월도 한국의 봄날씨다. 일본에는 작은 도시에도 연습구장·웨이트장이 더해진 야구장이 들어서 있는 등 야구 인프라가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잘 갖춰진 시설과 함께 연습경기 상대 팀이 많다는 것도 오키나와 캠프의 매력이다. 올 시즌에도 라쿠텐·주니치는 물론 삼삼·SK·LG·한화까지 캠프를 차릴 예정이라 연습경기 일정을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한국 야구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인프라와 변화무쌍한 겨울날씨에 KIA 선수들은 먼길을 달려 2013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원 KT 최종 승인...프로야구 10구단 체제로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7일 총회를 열어 경기도 수원을 연고로 하는 KT의 신규 구단 창단을 최종 승인하면서 프로야구 10구단 체제가 본격 막을 올렸다.

KT는 가입금으로 30억원, 야구발전기금으로 200억원, 예치금으로 100억원을 KBO에 낸다. 올해 공식 창단하면 내년 퓨처스리그(2군리그)에서 기량을 쌓은 뒤 2015년 1군에 합류한다.

◇단일리그·경기 수는 팀당 135~144경기= 2015년부터 프로야구는 수도권 5개 구단과 지방 5개 구단 등 총 10개 구단의 경쟁 체제로 재편된다.

KBO는 5개 팀씩 리그를 둘로 쪼개는 양대리그 시행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홀수 팀으로 리그를 편성하면 한 팀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피하다. 결국 단일리그로 치르되 팀당 경기 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숙제가 남는다.

KBO의 관계자는 “팀당 14~16번씩 9개 팀과 맞붙는다고 가정하면 126, 135, 144경기 등 세 가지 수가 나온다”며 “우리나라의

기후와 아시아 시리즈 등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9개 구단이 결합하는 올해 프로야구에서 팀당 경기 수는 128경기로 지난해 133경기에서 5경기 줄었다. 10개 구단 체제가 되면 135~144경기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포스트시즌 진출은 4~5개 팀이 적당= 각 구단 실무자들은 포스트시즌에 6개 팀이 올라가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규모에 비해 너무 많고, 아울러 포스트시즌이 좌절된 4개 팀은 상당한 비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KBO는 “4개 팀이 출전하면 현행 방식을 고수할 수도 있고, 정규리그 1~2위, 2~3위가 크로스로 매결해 한국시리즈 출전팀을 가리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전체의 절반인 5개 팀으로 포스트시즌 출전팀을 늘리면 1위 팀에 한국시리즈 직행이라는 어드밴티지를 줄 수도 있다.

야구계 안팎에서는 정규리그 1위 팀에 지나치게 유리한 현행 포스트시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합뉴스



동계훈련 팀에 쌀 전달

광주시야구협회가 지난 16일 송정농협 경제사업장에서 나훈 회장 취임식 때 받은 쌀 화환을 동계훈련 중인 광주 초·중·고·대학 16개팀에 기증했다. <광주시야구협회 제공>

소파 식탁 거실장 기획전 각 50조 한정!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다음달 30일까지



06대리석 4인식탁 세트 190 → 95만원



월넛 안전유리 4인식탁 세트 190 → 95만원



4인 기능소파 방석 4개 나옴 290 → 195만원



라운드 4인소파 290 → 195만원

홍스페이스

이태리&모던가구 직수입 도소매

☎ 1899-0240

동구청엽 장동로터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400평